

겸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조공호 · 김소연

서강대학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징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관련된 두 실험을 통해 밝혀 보려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내귀인하는 겸양 편향 귀인 경향을 보이며, 또한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이 확인되었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들로 나누었을 때,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겸양이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로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행위 원리라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북미나 북구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Hofstede, 1980, 1983, 1991)에서는 개인적 욕구나 목표의 추구는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강조하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기 존대를 추구하게 되고, 독특성과 적극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므로, 이 사회에서는 자기의 부적 측면은 회피하고 절하하는 대신, 정적 측면은 확인하고 드러내는 데에서 자존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시아나 남미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Hofstede, 1980, 1983, 1991)에서는 개인적 욕구나 목표의 추구는 집단 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관계에서 자기억제를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겸양과 조화 및 양보와 협동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의존성

과 조화이므로, 이 사회에서는 자기의 정적 측면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대신, 부적 측면은 확인하고 수정해 가므로써 집단의 발전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서 자존감이 증가하게 된다(조공호, 1993, 1995, 1996; Diner & Diner, 1995; Heine & Lehman, 1995; Kitayama & Markus, 1996;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Taylor, 1983; Taylor & Brown, 1988; Triandis, 1989, 1994, 1995 등).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의 대학생에게서 찾아지는 전형적인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 즉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같은 내적 성향에 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운이나 과제 곤란도 같은 외적 상황에 귀인하는 경향이(Bradley, 1978; Davis & Stephan, 1980; Fiske & Taylor, 1991;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2; D. T.

Miller, 1976; D. T. Miller & Ross, 1975; Schlenker, Weigold, & Hallam, 1990; Sicolý & Ross, 1977; Snyder, Stephan, & Rosenfield, 1976, 1978; Weiner, 1986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의 경향, 즉 자기 성공은 과제용이도나 운으로, 자기 실패는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겸양 편향(modesty bias)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Bond & Hwang, 1986; Shikanai, 1978; Smith & Bond, 1993; Takata, 1987; Yamauchi, 1988, 1990 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고양 편향 대신 자기고양(self-effacing)나 자기비하(self-derogation) 같은 겸양 편향이 일반적인 사회 비교의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집단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겸양 편향은 자기 성취에 대한 귀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R. S. Miller와 Schlenker(1985)는 미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집단 작업의 성과에 대한 귀인에서도, 특히 귀인 결과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기고양과 동료비하의 경향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¹⁾ 그러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작업 성과에 대한 귀인에서 자기비하와 동료고양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혜숙(1995, 1997)에

1) Ross와 Sicolý(1979) 및 Thompson과 Kelley(1981)는 부부나 농구팀과 같은 집단의 공동 작업 또는 공통의 일에 대한 책임 귀인에서 미국인들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대체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미국인들은 대체로 집단의 성과에 대해 자신의 기여가 상대방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아중심적 편향[egocentric bias: Taylor, Peplau와 Sears(1994, p.128)는 이를 self-centered bias라 부르고 있다]이라 하는데, 이는 자기와 상대방의 기여 정보의 가용성과 기억용이성의 차이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으나, 자기의 효능성(efficacy)과 통제력을 과장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양시키려는 동기에서 이러한 자아중심적 편향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Ross & Sicolý, 1979; Taylor et. al., 1994). 이러한 자아중심적 편향은 부적 성과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더 책임을 많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기고양 편향과는 다른데(Taylor et. al., 1994), 앞에 제시된 바와 같은 동기적 관점의 설명에 따르면, 자아중심적 편향도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 보편적인 자기고양 편향이 부부나 한 농구팀의 성원과 같은 밀접한 관계의 집단에서도 나타난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집단의 작업 결과에 대해 귀인할 때 집단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동료의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이라 귀인하고(1995, 실험 2; 1997), 집단 실패에 대해서는 자기의 능력이 동료의 능력보다 못했기 때문이라고 귀인하였다(1995, 실험 2). 또한 동료의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은 집단이 성공했을 때가 실패했을 때보다 항상 높았다(1995, 실험 2; 1997). 이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은 집단의 성패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1995, 실험 2; 1997), 자신의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집단의 실패보다 성공의 경우에 높은 경향은 일부의 결과(1995, 실험 2)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동료고양-자기비하의 경향은 귀인 결과가 공개되는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익명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사회행위의 근본 원리로서의 겸양의 가치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을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Yoshida, Kojo와 Kaku(1982)는 일본의 학생들은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이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보다 성격 특성도 더 좋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므로써, 겸양이 조화를 추구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특성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자기 수행에 대해서는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자를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자보다 더 좋아하고(Bond, Leung, & Wan, 1982), 집단 수행에 대해서는 동료고양 편향적 귀인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Bond, Chiu, & Wan, 1984).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김진국(198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개인 수행(교내 탁구대회 단식 결승전)의 경우 겸양 편향적 귀인자를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자보다 더 겸손하고, 정직하며, 호감이 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집단 수행(교내 탁구대회 복식 결승전)의 경우 동료고양적

귀인자를 자기고양적 귀인자보다 겸손하고, 정직하며, 호감이 갈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이렇게 겸양 편향적 귀인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의 학력고사 성적의 귀인(실험 4)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숙과 유주란(1995)의 연구에서도 똑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낱말 만들기 과제에 대한 개인 수행의 성과(연구 1)를 겸양 편향적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자기고양 편향적으로 귀인하는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겸손하며,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같은 과제의 집단 수행의 성과(연구 2)에 대해서도 동료고양적 귀인자를 자기고양적 귀인자보다 더 따뜻하고, 겸손하며,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선 연구자들(한규석, 1991; Cha, 1994; Hofstede, 1980, 1983, 1991)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사회로서,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인 겸양 편향적 귀인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겸양 편향적 귀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을 두 개의 관련된 실험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려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연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확장해서 이 현상을 재검해 보려 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적 성향의 차이(개인중심성과 집단중심성: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in press; Triandis, 1989, 1994,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차이가 유발되는지를 확인하므로써,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이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징인지를 검토해 보려 하였다.

실 험 1²⁾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취 결과에 대한 겸양 편

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을 다룬 연구들(김진국, 1986; 김혜숙, 1995, 1997; 김혜숙·유주란, 1995)은 거의 모두 대학생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다.³⁾ 이러한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거나(김진국, 1986; 김혜숙·유주란, 1995) 또는 한 강의의 수강자들이 담당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3~4명의 소집단을 이루어 실험에 참가하였다(김혜숙, 1995, 1997). 따라서 이 실험들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강의 담당교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실험에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실험의 요구 특성(demanding characteristics)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개연성(Adair, 1973; Martin, 1991)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재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피험자에게 하나의 상황 [교내 탁구대회 결승전 성적(김진국, 1986, 실험 1과 2), 학업 성적(김진국, 1986, 실험 3과 4), 사회민감성 척도 점수(김혜숙, 1995, 연구 1), 낱말 만들기 과제 점수(김혜숙, 1995, 연구 2; 1997; 김혜숙·유주란, 1995, 실험 1과 2)]을 제시해 주고, 이에 대해 실제로 귀인을 하게 하거나(김혜숙, 1995, 1997),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상인물의 특정한 한 가지 귀인 결과를 알려 준 다음 그에 대한 특성추론이나 인상평정을

2) 실험 1은 선기 필자의 지도로 후기 필자(김소연, 1997)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이다.

3) 김진국(1986)의 4개 실험, 김혜숙(1995, 1997; 김혜숙·유주란, 1995)의 6개 실험 등 10개 실험 중 대학생을 피험자로 한 것이 8개(80%)이었고, 고등학생을 피험자로 한 것이 1개(김진국, 1986, 실험 4), 그리고 운동 경기의 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1개(김혜숙, 1995, 연구 3)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이 참여한 연구의 피험자들은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관중도 대체로 학생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보면, 운동 경기의 관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순수하게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하게 하는 방식(김진국, 1986; 김혜숙·유주란, 1995)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상황에 대한 귀인 또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한 유형의 귀인자에 대한 대인평가를 하도록 한 연구들의 결과는, 자칫 제시된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상황과 그에 대한 특정한 귀인의 영향에 의한 특유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좀 더 폭 넓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한 피험자에게 여러 상황과 여러 귀인 유형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제시해 주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실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을 다룬 선행 연구들(김진국, 1986; 김혜숙·유주란, 1995)에서는 종속측정치로 특성추론과 인상평정을 삼고 있다. 이때 특성추론은 유능성·겸손성·정직성(김진국, 1986), 유능성·겸손성·솔직성·온화성(김혜숙·유주란, 1995) 등 3~4개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상평정은 두 연구 모두 호감도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은 호오도와 화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조공호, 1982, 1990, 1993 참조), 종속측정치로서의 인상평정은 호감도 이외에 화친도나 동료선호도 등을 함께 측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추론과 인상평정 이외에 제시된 바와 같은 귀인을 하리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수와 스스로가 그러한 귀인을 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를 종속측정치로 삼입하면, 경양 편향 귀인 경향의 유무를 살펴 보는 보조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직장인들이 보통 부딪치는 여러 상황에서의 다양한 귀인의 유형을 제시해 준 다음, 여러 종류의 종속측정치(자기와 타인이 이러한 반응을 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 겸손성·신뢰성·유능성 등의 특성추론, 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 등의 인상평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 경양 편향 귀인 경향의 유무와 경양 편향 귀인자에 대한 선호 현상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취 결과에 대한 내부 귀인을 능력 귀인과 노력 귀인으로 나누어 전기 필자(조공호, 1993, 1995)와 김혜숙(1995; 김혜숙·유주란, 1995)이

밝힌 대로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노력을 능력보다 더 중시하고, 따라서 능력이 능력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도 아울러 재검해 보려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보험·증권·건설·제조·광고·이벤트 회사 등에 근무하는 회사원 310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회사의 선정은 후기 필자와 그 지인 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은 종류의 회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각 직장 단위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70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 기록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10부를 제외하고, 총 26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일반적 특징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나 이	20세 이하	4	1.5
	21 - 30세	148	56.9
	31 - 40세	90	34.6
	41 - 50세	14	5.4
	51세 이상	4	1.5
성 별	남 자	174	66.9
	여 자	86	33.1
학 력	고 졸	38	14.6
	전문대졸	18	6.9
	대졸이상	204	78.5
직 위	평 사 원	127	48.8
	대 리	81	31.2
	과장이상	52	20.0

독립변인 선정 후기 필자와 그녀의 직장 동료 세 사람이 각각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을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내도록 하였다. 이들 중 4인에게서 중복이 많았던 성공과 실패 상황을 각각 다섯 가지씩 추출하고, 이어서 전기 필자와의 공동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공과 실패 상황을 각각 두 가지씩 선정하

였다.

다음으로는 이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양식을 선정하였다. 이는 필자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작성하고, 후기 필자의 동료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합성(각 상황에서 그러한 귀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을 판단케 하여, 그 적합성이 높은 것을 각 상황별 내·외 귀인으로 한 가지씩 골랐다. 이때 내귀인은 능력과 노력 귀인이 반반이 되도록 하였으며, 외귀인은 타인에 대한 귀인으로 통일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씩의 성공과 실패 상황 각각에 대해 내·외 귀인 유형 하나씩을 짝지워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였는데(두 가지씩의 성공·실패 상황에 대한 내·외귀인으로 총 여덟 가지 조합), 최종적으로 선정된 상황과 각 상황에 대한 귀인 유형을 성공과 실패 상황별로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성공상황 :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 내귀인 : 일벌레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 외귀인 :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 실패상황 : 인사 이동시 희망하는 부서로 옮기지 못했다.
 - 내귀인 : 더 열심히 일하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 놓았어야 했는데……
 - 외귀인 : 그 부서장이 날 싫어하기 때문이야.

종속변인 선정 본 실험에서는 여덟 가지 각각의 상황-귀인 조합에 대하여 반응추정, 특성추론, 인상평정의 세 가지 종속측정치를 얻어 내었다.

반응추정은 타인(일반 직장인)의 반응추정과 자신의 반응추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타인의 반응추정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전체 직장인의 ()%이다”라는 물음에 추정되는 백분율을 기록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반응추정은 “내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은 ()%이다”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었다.

특성추론은 제시되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은

귀인을 하는 사람의 겸손성·유능성·신뢰성을 각각 7점의 의미분척도의 형용사 반대어쌍(겸손하다-건방지다, 유능하다-무능하다, 신뢰할 만하다-신뢰할 수 없다)에서 추론하도록 하였다.

인상평정은 특성추론과 마찬가지로 제시되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를 각각 7점의 의미분척도의 형용사 반대어쌍(호감이 간다-호감이 가지 않는다, 같이 일하고 싶다-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도구 작성 본 실험의 도구는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소책자이었다. 제일 첫 장에는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문과 응답의 요령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이 실험이 인상형성에 관한 것으로, 제시되는 사건보다는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을 보고 그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응답자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므로 개인의 응답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었다.

두번째 장부터 아홉번째 장까지는 한 장에 하나의 상황과 그에 대한 귀인을 <보기>로 해서 연결해 놓았다. 성공-외귀인 조합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보기>

사건 : 요즈음 나는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반응 :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봐 준 덕분이야”

위와 같이 귀인 반응은 나머지 내용과는 글자체와 크기도 다르게 하고, 또 인쇄도 진하고 굵게 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다. 그 밑에 “I. ()안에 적당한 수치를 적어 넣으십시오”란 지시문을 주고, 1, 2로 하여 각각 타인 반응추정과 자신 반응추정의 응답지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II. <보기>와 같이 반응한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아래의 척도 상에 표시하십시오”란 지시문과 함께, 겸손성·유능성·신뢰성·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의 순으로 특성추론과 인상평정을 위

한 7점 의미분척을 그려 넣었다.

모두 여덟 가지 조합에 대해 <보기>의 내용만 다르고, 응답지는 위와 동일하게 하였다. 다만 소재자로 묶을 때는 이 여덟 가지 조합의 순서를 무선적으로 뒤섞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응답자의 나이·성별·학력·직위를 기록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성명이나 기타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정보에 관한 것은 없었다.

절차 후기 필자가 선정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인을 통해 직장 단위별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1주일 이 지난 후에 재방문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1997년 3월 6일부터 3월 2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결과 및 해석

각 피험자에게서 얻은 모두 여덟 가지의 종속측정치(자·타의 반응추정치, 겸손성·신뢰성·유능성의 특성추정치, 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의 인상평정치) 각각을 우선 성공·실패×내·외귀인의 2×2 요인방안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성공과 실패 상황이 각각 두 개씩 있었으므로, 네 조건 각각에 해당하는 두 개씩의 응답치를 평균하여, 각 요인별 각 피험자의 반응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피험자내 설계의 방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반응추정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전체 직장인들과 자신이 각각 내귀인과 외귀인을 하리라고 추정한 반응추정치의 평균 및 이 두 추정치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자신은 성공 상황에서는 내귀인(45.52%)보다는 외귀인(56.66%)을 더 많이 하고, $t=7.93, p<.001$, 실패 상황에서는 외귀인(37.47%)보다는 내귀인(46.25%)을 더 많이 한다, $t=6.20, p<.001$ 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반응추정치의 성·패상황에 따른 내·외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F=89.90, p<.001$, 이는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자

표 2. 반응추정치의 성·패×내·외귀인 평균(%)과 그 차이

	성 공		실 패	
	내귀인	외귀인	내귀인	외귀인
타인반응추정(T) ^{ab}	49.19	49.58	44.84	48.62 ¹⁾
자신반응추정(P) ^c	45.52	56.66	46.25	37.47
T - P ^c	4.23	-7.28	-1.04	11.43

1) 반응추정치가 이태릭인 것은 내·외 귀인 추정치에 차이($t, df=247-259, p<.05$, 양방)가 있음을 나타냄(큰 쪽에 이태릭; 표 3 같음)

a 성공·실패의 주효과($F, df=1/244-259, p<.05$; 표 3 같음)

b 내·외귀인의 주효과($F, df=1/244-259, p<.05$; 표 3 같음)

c 성·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효과($F, df=1/244-259, p<.05$; 표 3 같음)

신의 성취에 대해 겸양 편향적 귀인 경향을 보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겸양 편향적 귀인 경향은 타인의 반응추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다른 사람들(전체 직장인)은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성패×귀인 상호작용; $F=2.56, p>.05$), 오히려 실패 상황에서는 자기고양적 귀인을 하기도 하는 것, $t=2.64, p<.001$ 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자신은 타인에 비해 성공 상황에서는 내귀인($T-P=4.23$)보다는 외귀인(-7.28)을 더 많이 하고, 실패 상황에서는 타인에 비해 외귀인(11.43)보다는 내귀인(-1.04)을 많이 한다고 추정하므로써, $F=183.74, p<.001$, 자신이 타인보다 더 겸양적 귀인을 한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성추론과 인상평정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평가한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내귀인자와 외귀인자에 대한 겸손성·신뢰성·유능성의 특성추론치와 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의 인상평정치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는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보이는 겸양 편향 귀인자 선호 현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성공에 대해서는 외귀인자가 내귀인자보다 더 겸손하고($t=29.16$), 신뢰로우며($t=9.00$), 실패에 대해서는 외귀인자보다 내귀인자가 더 겸손하고($t=16.23$), 신뢰로우($t=11.93$) 뿐만 아니라 유능하기까지 하다($t=5.57$)고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모두 $p<.001$).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은 성·패×내·외귀인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검증되고 있는데, 겸손성(F=766.40), 신뢰성(F=199.89), 유능성(F=23.71)의 특성추론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검출되고 있다(모두 $p<.001$).

이러한 경향은 인상평정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성공에 대한 외귀인자가 내귀인자보다 더 호감이 가고($t=16.87$),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으며($t=17.58$), 또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t=17.55$), 실패에 대해서는 내귀인자를 외귀인자보다 더 좋아하고($t=11.82$), 같이 일하고 싶어하며($t=10.63$),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t=11.75$) 것이다(모두 $p<.001$). 이 경우에도 호감도(F=347.56), 동료선호도(F=335.99), 화친도(F=360.10)에서 모두 성·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모두 $p<.001$).

이러한 결과는 평균 연령이 32.1세인 기업체 종사자들도 대학생들(김진국, 1986; 김혜숙·유주란, 1995)과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해서는 외귀인(타인귀인)하는 사람을 내귀인(능력·노력귀인)하는 사람보다 더 선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내귀인(능력·노력귀인)하는 사람을 외귀인(타인귀인)하는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써,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능력·노력 귀인의 비교 본 실험에서는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모두 내귀인을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의 두 가지로 변화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취의 성과에 대한 노력귀인의 경향이 능력귀인의 경향보다 강하며(김혜숙, 1995),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

자보다 더 선호한다(김혜숙·유주란, 1995)는 결과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검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 내귀인의 조건만을 따로 떼어 성공·실패×능력·노력귀인의 2×2 요인방안으로 정리하였다. 이때는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으로 조작한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이 하나씩만 있었으므로, 이 네 조건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원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전체 직장인들과 자신이 각각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을 하리라고 추정한 반응추정치의 평균 및 이 두 추정치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드러나듯이, 성·패에 관계없이 타인반응추정치(F=98.57)나 자신반응추정치(F=92.82)에서 모두 노력귀인이 능력귀인보다 크다(모두 $p<.001$). 이는 김혜숙(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 직장인들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취의 성과에 대해 능력귀인보다 노력귀인을 더 많이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표 4에서는 자신반응추정치에서는 성공 상황에서의 노력-능력 귀인차(15.36)가 실패 상황에서의 노력-능력 귀인차(8.98)보다 큰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F=6.16$, $p<.05$. 여기서 개인수행의 경우 성공에 대해서는 노력귀인자가 능력귀인자보다 더 겸손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귀인자가 노력귀인자보다 더 겸손한 것으로 평정된다는 사실(김혜숙, 1995, 표 2; 본

표 4. 반응추정치의 성·패×능력·노력귀인 평균(%)과 그 차이

	성 공		실 패	
	능력	노력	능력	노력
타인반응추정(T) ^{ab}	42.89	55.45	39.81	49.87 ¹⁾
자신반응추정(P) ^{bc}	37.56	52.92	41.48	50.46
T - P ^a	5.87	2.83	-1.52	-4.6

1) 반응추정치가 이태리인 것은 능력·노력귀인 추정치에 차이(t , $df=247-259$, $p<.05$, 양방)가 있음을 나타냄(큰 쪽에 이탤릭; 표 5 같음)

a 성공·실패의 주효과(F , $df=1/244-259$, $p<.05$; 표 5 같음)

b 능력·노력귀인의 주효과(F , $df=1/244-259$, $p<.05$; 표 5 같음)

c 성·패×능력·노력귀인의 상호작용효과(F , $df=1/244-259$, $p<.05$; 표 5 같음)

표 3. 특성추론치와 인상평정치의 성·패×내·외귀인 평균¹⁾

	성 공		실 패	
	내귀인	외귀인	내귀인	외귀인
특성추론 : 겸손성 ^{abc}	3.36	5.61	4.63	3.39
신뢰성 ^{ac}	4.38	5.08	4.21	3.33
유능성 ^{abc}	4.90	5.00	3.66	3.28
인상평정 : 호감도 ^{abc}	3.78	5.22	4.06	3.16
동료선호도 ^{abc}	3.91	5.38	3.99	3.13
화친도 ^{abc}	3.78	5.30	4.06	3.10

1) 1-7점 척도의 평균치로, 점수가 클수록 정적인 평가를 나타냄(이하 모두 같음)

고의 표 5 중 겸손성 항목)을 참조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자신반응추정치에서의 겸양 귀인 경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5는 피험자들이 평가한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능력귀인자와 노력귀인자에 대한 특성추론치와 인상평정치의 평균이다. 이 표에서 보면, 모든 특성추론(겸손성, $F=76.31$; 신뢰성, $F=80.51$; 유능성, $F=42.95$)과 인상평정(호감도, $F=74.55$; 동료선호도, $F=94.06$; 화친도, $F=87.44$)에서 능력·노력귀인의 주요 효과가 검출되고 있다(모두 $p<.001$). 이는 전체적으로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더 선호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의 충실한 수행, 즉 행위의 상황가변성을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성취 장면에서는 비교적 고정적인 능력보다는 가변적인 노력(Weiner, 1979)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선기 필자의 이론(조공호, 1993, 1995, 1996)이 대체로 타당함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는 한계가 따른다. 표 5에서 보면, 성공의 상황에서는 모든 특성의 추론(겸손성, $t=12.33$; 신뢰성, $t=10.58$; 유능성, $t=5.27$)과 인상의 평정(호감도, $t=10.68$; 동료선호도, $t=11.70$; 화친도, $t=11.53$)에서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선호하고 있다(모두 $p<.001$). 그러나 실패의 상황에서는 능력귀인자가 노력귀인자보다 더 겸손하지만($t=1.99$, $p<.05$), 덜 유능한 것($t=3.89$, $p<.001$)으로 추론되고 있을 뿐, 신뢰성과 세 가지의 인상평정치들에서는 두 귀인자에 대한 선호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유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겸손성, $F=112.00$; 신뢰성, $F=41.09$)과 인상평정치(호감도, $F=47.42$; 동료선호도, $F=59.36$; 화친도, $F=59.48$)에서 성·패×능력·노력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모두 $p<.001$) 검출되게 만든 원천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대체로 성공의 상황에 국한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표 4에서 자신반응추정치의 경우 성공 상황에서의 노력귀인-능력귀인의 차이(15.36)가 실패 상황에서의 그 차이(8.98)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5. 특성추론치와 인상평정치의 성·패×능력·노력귀인 평균

	성 공		실 패	
	능력	노력	능력	노력
특성추론 : 겸손성 ^{abc}	2.74	3.98	4.71	4.55
신뢰성 ^{abc}	3.87	4.90	4.14	4.28
유능성 ^{ab}	4.68	5.12	3.51	3.80
인상평정 : 호감도 ^{abc}	3.20	4.36	3.99	4.13
동료선호도 ^{bc}	3.23	4.59	3.91	4.07
화친도 ^{abc}	3.15	4.41	3.97	4.16

이러한 표 5의 결과를 표 3의 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성공 상황에서는 외귀인자를 내귀인자보다 더 선호하지만, 내귀인자 중에서는 그래도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상황에서는 능력귀인자나 노력귀인자를 불문하고 이들 내귀인자들은 외귀인자보다 전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실패라는 부정적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이 능력이나 노력의 정보가 가지는 영향력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인평가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negativity effect: 조공호, 1988; 조공호·김인자, 1987; Anderson, 1965; Fiske, 1980; Hamilton & Zanna, 1972; Taylor, 1991 등)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 험 2⁴⁾

앞선 실험에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도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겸양 편향 귀인 경향과 겸양 편양 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보임이 관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결과만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전형적인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4) 실험 2는 전적으로 선기 필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결과 처리 과정에서 황진숙선생(관악초등학교)과 장성수 교수(한양대학교)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는 겸양 편양적 귀인 경향과 그러한 귀인자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평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Bradely, 1978; Carlston & Shovar, 1983; Gill, 1980; Weary & Arkin, 1981 등).

전통적으로 자기고양 귀인 편향은 인지적 설명(D. T. Miller & Ross, 1975) 보다는 자아존중 동기(Snyder et al., 1976, 1978)와 자기제시 동기(Bradely, 1978; Carlston & Shovar, 1983; Weary & Arkin, 1981) 등 동기 체계에 의해 설명되어져 왔다(Taylor et al., 1994). 즉, 성공을 능력 때문으로 해석하고, 실패는 상황이나 운이 나쁜 때문으로 해석하므로써, 자신이 여전히 능력있고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나 (자아존중 동기) 남에게(자기제시 동기)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고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Fiske & Taylor, 1991). 이 중 자기제시 동기에 위한 설명 체계에서는 만일 이러한 자기고양의 경향(성공은 내귀인, 실패는 외귀인)과는 반대의 경향(성공은 외귀인, 실패는 내귀인: 겸양 편향)이 자신의 자존심의 유지와 고양에 더 기여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고양 편향 대신에 겸양 편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Bradely, 1978; Carlston & Shovar, 1983; Weary & Arkin, 1981). 즉,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의 한 방편으로 자기고양과는 반대되는 겸양 편향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겸양 편향 귀인과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비교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문화비교 연구는 대체로 동일한 상황 또는 척도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응답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과 한 문화권 내의 응답자들의 반응을 그들의 문화 지향의 차이와 관련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⁵⁾ 이 중 전

자의 방법에는 사용되는 상황이나 척도 번역의 동질성 확보의 문제 및 상황이나 척도 사용의 탈중심화의 문제 등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개재하고 있다(한규석, 1997 참조). 뿐만 아니라, 이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겸양 편향 귀인 경향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이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임을 밝혀 보려 하였다.

Triandis(1989, 1994,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는 문화 수준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양극 차원이 한 개인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밝히고, 문화 수준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개인 수준에서는 개인중심성(idiocentrism)-집단중심성(allocentrism)이라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중심자가 집단중심자보다 많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고, 집단주의 사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즉, “만일 한 문화 내의 개인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체로 집단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집된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집단주의라 부르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이 문화 내의 70%의 사람들은 집단주의자이고, 30%는 개인주의자이다’와 같은 식의 진술을 할 수도 있다”(Triandis, 1994, p.42)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김의철, 1997)과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차재호·정지원, 1993) 및 20~40대의 기업체 종사원들(Cho, 1994) 사이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단주의적 가치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도 개인중심자와 집단중심자가 혼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규석(1995)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 내고, 우리 사회에서의 이 두 문화 성향자의 여러 차이를 밝힌 연구들을 개관해 내고 있다.⁶⁾ 이러한 연구들에

는 문화내적 분석에 해당한다. Triandis 등(1993)이 말하는 범문화권적 분석은 문화차는 무시하고, 여러 사회에서 얻은 응답자들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문화비교 연구라 보기 힘들다.

6) 한규석(1991)은 idiocentrism을 홀로성향, allocentrism을 두레성향이라고 순수한 우리말 식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p.4의 주 3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인주

5)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와 Zaleski(1993)에 의하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간 비교 분석, 문화내적 분석, 범문화권적 분석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본문의 전자는 문화간 비교 분석에 속하고, 후자

따르면, 개인중심자와 집단중심자의 차이는 그대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차와 직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실험 2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실험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경양 편향 귀인 경향과 경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는 집단중심성향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므로써, 이러한 현상이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남학생 57명(68.7%), 여학생 26명(31.3%), 도합 83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독립변인 선정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피험자별로 개인중심성과 집단중심성을 측정한 것 이외에는 실험 1과 같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개인-집단중심성의 측정 척도는 Singelis 등(in press)이 제작한 1994 INDCOL 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판으로 표준화한 것이었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함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ND)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HIND)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자(VCOL)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OL)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 이 척도는 각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문항 여덟 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과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Singelis 등(in press)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의-집단주의라는 문화 차원과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이라 부르고 있다.

얻어 내었으며,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ND =.71, HIND=.81, VCOL=.68, HCOL=.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 척도는 우리 의식 설문지와와의 상관 분석과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유형과의 관계의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종속변인 선정 본 실험의 종속변인은 실험 1과 같았다.

도구 작성 실험 2의 도구는 개인-집단중심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과 피험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항목이 없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실험 1의 것과 같았다. 개인-집단중심성 척도는 응답 요령과 함께 맨 앞 페이지에 부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절대 반대”(1)~“절대 찬성”(9)의 9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나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나의 생각과 아주 일치한다”(9)의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은 담당교수인 선기 필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도구인 소책자의 배부—응답 요령 및 주의할 점 지시—응답—소책자의 회수의 순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대략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결과 및 해석

문화적 성향 각 피험자에게서 얻은 개인-집단중심 성향 척도의 결과를 VIND, HIND, VCOL, HCOL 별로 계산하고, 각 피험자별로 VIND와 HIND의 점수를 합하여 개인중심성향(TIND) 점수로 삼고, VCOL과 HCOL의 점수를 합하여 집단중심성향(TCOL) 점수로 삼았다. 다음 표 6은 이들 간의 적률 상관계수(r)를 제시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면, 개인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은 그 자체 간에는 물론이고 집단중심성향의 하위 척도 및 전체 집단중심성향과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은 다만 전체 개인중심성향과만 높은

표 6. 문화적 성향 척도의 하위척도치 간 상관(r) (n=83)

	HIND	VCOL	HCOL	TIND	TCOL
VIND	.06	.20	.03	.65***	.14
HIND		.09	.12	.79***	.12
VCOL			.52***	.19	.88***
HCOL				.11	.87***
TIND					.17

*** p<.001

상관(.65와 .79)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 간에는 상관이 높은 것(.52)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전체 개인중심성향과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전체 집단중심성향과는 아주 높은 상관(.87과 .88)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의 하위 척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검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대 하였던 바의 것이다. 여기서 특히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과 각각 전체 집단중심(TCOL) 및 전체 개인중심(TIND) 성향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 TCOL과 TIND를 각 피험자의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원점수로 삼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피험자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의 점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전체 피험자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 “개인중심성 고-집단중심성 저”인 집단을 개인중심성향의 집단으로, “개인중심성 저-집단중심성 고”인 집단을 집단중심성향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각 성향별 피험자의 분포는 표 7과 같다.

표 7. 성향별 응답자 분포(명)

	개인중심성향 (TIND)	
	저	고
집단중심성향 (TCOL)	저	19
	고	20(집단중심성향자)
		21(개인중심성향자)
		23

이 표에서 보면, 본 실험의 전체 피험자 중 집단중심성향자는 20명(24.1%), 개인중심성향자는 21명(25.4%)으로 판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들 41명의 결과를 주축으로 하여 문화 성향(2)×성공·실패(2)×내·외귀인(2)의 요인방안에서 뒤의 두 요인이 반복된 설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에서 이 세 변인의 3원 상호작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전체 피험자를 개인중심성 고·저(2)×성공·실패(2)×내·외귀인(2)과 집단중심성 고·저(2)×성공·실패(2)×내·외귀인(2)의 요인방안으로 재분석하므로써, 두 문화 성향 중 어느 것이 결양 편향의 영향원인지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반응추점 본 실험의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피험자들이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전체 직장인들과 자신이 각각 내귀인과 외귀인을 하리라고 추정한 반응추정치의 평균 및 이 두 추정치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성향은 타인의 반응추정치와 자신의 반응추정치 및 이들의 차이(T-P)에서 모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표 2 참조), 자신반응추정치(F=8.22, p<.01)와 T-P(F=23.42, p<.001)에서 성공·실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는 본 실험의 피험자들도 집단주의나 개인주의의 문화성향과는 관계없이, 자신은 성공 상황에서는 내귀인(50.57%)보다는 외귀인(55.98%)을 많이 하고, 실패 상황에서는 외귀인(38.45%)보다는 내귀인(48.26%)을 더 많이 한다고 추정하는 강한 결양 편향적 귀인 경향을 보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여기서 표 8의 결과 중 자신반응추정치를 자세히 살펴 보면, 이 경우 비록 문화성향×성공·실패×내

표 8. 반응추정치의 문화 성향×성·패×내·외귀인 평균(%)과 그 차이

	문화성향	성 공		실 패	
		내귀인	외귀인	내귀인	외귀인
타인반응추정(T)	집단	49.00	49.75	45.75	51.25
	개인	57.74 ¹⁾	48.29	51.43	53.98
자신반응추정(P) ^{bc}	집단	45.80	56.62	46.92	34.75
	개인	55.12	55.36	49.92	41.98
T - P ^{bc}	집단	3.20	-6.68	-1.18	16.50
	개인	2.40	-7.07	1.90	12.00

1) 반응추정치가 이태릭인 것은 내·외귀인 추정치에 차이(t , $df=19-20$, $p<.05$, 양방)가 있음을 나타냄(큰 쪽에 이태릭; 표 9 같음)

b 성공·실패의 주효과(F , $df=1/39$, $p<.05$; 표 9 같음)

c 성공·실패×내·외귀인 상호작용효과(F , $df=1/39$, $p<.05$; 표 9 같음)

·외귀인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F=2.01$, $p=.165$,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반응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성공과 실패 상황 모두에서 자신의 내·외귀인 추정치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집단중심성향자는 성공 상황($t=2.27$)과 실패 상황($t=2.22$)에서 모두 내·외귀인 추정치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모두 $df=19$, $p<.05$).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자신반응 추정치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겸양 편향 귀인의 현상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는 집단중심성향자에게서 두드러지는 반응의 경향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성추론과 인상평정 본 실험의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피험자들이 평가한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내귀인자와 외귀인자에 대한 겸손성·신뢰성·유능성의 특성추론치와 호감도·동료선호도·화친도의 인상평정치는 표 9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유능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3 참조) 겸손성($F=207.29$), 신뢰성($F=19.72$)의 특성추론치와 호감도($F=68.77$), 동료선호도($F=71.30$), 화친도($F=64.77$)에서 모두 성공·실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모두 $p<.001$). 이렇게 본 실험의 피험자들도 앞선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해서는 외귀인자가 내귀인자보

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는 내귀인자가 외귀인자보다 더 겸손하고 신뢰로우며, 따라서 더 호감이 가고,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으며, 친하게 사귀고 싶다고 평가하는 강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은 피험자의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신뢰성($F=4.90$), 호감도($F=8.50$), 동료선호도($F=4.59$), 화친도($F=6.83$)에서는 문화성향×성공·실패×내·외귀인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으며(호감도는 $p<.01$, 나머지는 모두 $p<.05$), 겸손성에서도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강한 삼원상호작용의 경향성($F=3.54$, $p=.067$)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9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의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내귀인자와 외귀인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성공 상황에서의 외귀인-내귀인의 차이 평균 1.43; 실패 상황에서의 내귀인-외귀인의 차이 평균 1.41)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그것보다(성공 상황에서의 외귀인-내귀인의 차이 평균 .77; 실패 상황에서의 내귀인-외귀인의 차이 평균 .79) 큼을 말하는 것으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는 집단중심성향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실험의 전체 피험자(83명)의 개

표 9. 특성추론치와 인상평정치의 문화성향×성·패×내·외귀인 평균

	문화성향	성 공		실 패	
		내귀인	외귀인	내귀인	외귀인
특성추론 : 겸손성 ^{bce(g)}	집단	3.28	5.90	4.90	2.72
	개인	3.55	5.71	4.71	3.19
신뢰성 ^{bce(g)}	집단	4.58	4.98	4.20	2.72
	개인	4.55	4.57	3.81	3.21
유능성 ^b	집단	5.08	4.98	3.45	3.18
	개인	5.14	4.81	3.19	3.21
인상평정 : 호감도 ^{beg}	집단	3.52	5.42	4.08	2.55
	개인	4.07	4.98	3.79	3.05
동료선호도 ^{beg}	집단	3.62	5.52	3.72	2.42
	개인	4.10	5.12	3.67	2.79
화친도 ^{beg}	집단	3.70	5.55	4.10	2.40
	개인	3.95	4.81	3.87	2.88

c 내·외귀인의 주효과(F, df=1/39, p<.05)

g 문화성향×성·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효과(F, df=1/39, p<.05)

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을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에게서 각 특성추론치와 인상평정치를 개인중심성향(고·저) × 집단중심성향(고·저) × 성공·실패 × 내·외귀인의 4 원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분석에서도 성공·실패 × 내·외귀인의 상호작용은 유능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손성(F=419.81), 신뢰성(F=48.80), 호감도(F=170.58), 동료선호도(F=136.61), 화친도(F=165.66)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모두 df=1/79, p<.001), 강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이 분석에서 개인중심성향(고·저) × 성공·실패 × 내·외귀인의 삼원상호작용은 모든 특성추론과 인상평정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지만(F=.02~1.16, df=1/79, p>.05), 집단중심성향(고·저) × 성공·실패 × 내·외귀인의 삼원상호작용은 유능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손성(F=4.06), 신뢰성(F=4.03), 호감도(F=8.89), 동료선호도(F=6.78), 화친도(F=7.06)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호감도는 p<.01, 나머지는 모두 p<.05).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검출되는 바의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피험자들의 집단중심성향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이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능력·노력 귀인의 비교 본 실험의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두 종류의 내귀인(능력귀인·노력귀인)에 대한 반응추정치와 이 두 종류의 내귀인자(능력귀인자·노력귀인자)에 대한 선호 경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피험자의 문화성향은 이 두 유형의 귀인에 대한 자·타의 반응추정과 이 두 유형의 귀인자에 대한 특성추론 및 인상평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도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F=15.42)과 타인(F=32.35)의 노력귀인 추정이 능력귀인 추정보다 크고, 겸손성(F=14.62), 신뢰성(F=10.97), 호감도(F=23.45), 동료선호도(F=24.76), 화친도(F=18.02)의 경우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선호하는(신뢰성은 p<.002, 나머지는 모두 p<.001)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겸손성(F=36.29), 신뢰성(F=6.23),

호감도($F=5.69$), 동료선호도($F=9.09$), 화친도($F=7.33$)의 평정에서는 성공·실패×내·외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검손성은 $p<.001$, 신뢰성과 호감도는 $p<.05$, 동료선호도와 화친도는 $p<.01$). 이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성공 상황에서는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더 선호하지만, 실패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대체로 성공의 상황에 국한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이다.

종합 논의

이상의 결과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타인의 도움에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남의 탓이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에 귀인하는 경향 편향 귀인)과 이러한 경향

7) 엄밀히 말하면, 본 연구의 자기와 타인의 반응추정치의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은 자신은 타인보다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서 경향 편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추정한다는 것이지 경향 귀인의 행동 그 자체는 아니다. 이는 본고의 초고를 읽고 심사해 준 두 분의 평가자 중 한 분의 예리한 지적이었다.

이는 많은 귀인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갖는 결함을 본 연구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ske와 Taylor(1984)는 귀인이론은 기본적으로 과정모형(process model)인데,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은 직접 다루지 않고, 귀인 결과에 의해 그 과정을 추론하는 편법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귀인과정의 실험 연구들은 대체로 질문지에 의한 모의실험(simulation experiment)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제안자인 Heider(1958)의 일상심리학(naive psychology)의 논지에서 벗어나, 일상인의 심리 과정을 탐구하지 못하고 심리학자의 논리를 탐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Nisbett & Ross, 1980).

본 연구도 질문지에 의한 모의실험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귀인 그 자체가 아니라 두 종류의 귀인자(자기고양 귀인자와 경양 귀인자)에 대한 인상평가이었다는 점에서 위의 귀인 연구 일반에 대한 비판은 본 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추정치 중 하나인 반응추정치는 자기와 타인이 제시된 바와 같은 귀인을 할 가능성이 추정케 한 것으로, 이는 행위 의도를 평정케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 의도의 평정에서 자신이 타인보다 더 경양적인 귀인을 하리라고 추정했던 것은 곧 실생활 장면에서의 그러한 귀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의 피험자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는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내귀인 중에서도 노력귀인을 능력귀인보다 더 많이 하며, 또한 특히 성공의 상황에서는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피험자 개개인의 반응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의 조건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들 중 자신의 성취에 대한 경양 편향적 귀인 경향을 드러내거나(예: Carlston & Shovar, 1983; Schlenker et al., 1990; Weary & Arkin, 1981 등) 집단의 성취에 대한 자기비하-동료고양적 귀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예: R. S. Miller & Schlenker, 1985; D. M. Taylor & Doria, 1981) 경우는 모두 귀인의 결과가 타인이나 동료들에게 공개되는 장면에서였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장면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자기고양 귀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양 편향이란 인상관리의 한 방편으로(Freedman et al., 1981) 자기 제시의 동기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경향의 특수한

들이 경양 편향 귀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평가자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자기 경양이 가지는 사회선망도(social desirability)를 고려해 볼 때, 위의 결과는 오히려 자기고양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해주었다. 개인중심성향자들도 경양 편향 귀인자를 자기고양 귀인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표 9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은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는 집단중심성향자의 경우가 훨씬 심하다는 결과(표 9 참조)와 자신반응추정치에서의 경양 편향 귀인 경향이 집단중심성향자에게서는 나타나지만 개인중심성향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표 8 참조) 및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익명의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개인중심성향자들도 자기고양 귀인자보다 경양 편향 귀인자를 선호한다는 사실 그 자체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행위 원리로서의 경양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양 편향 귀인 경향을 자기고양적인 귀인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필자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귀중한 지적을 해주신 이 평가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경우라고 보는 입장(Bradely, 1978; Weary & Arkin, 1981)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익명의 조건에서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비하-동료교양의 겸양 편향적 귀인 경향이 이러한 귀인 결과가 공개되는 장면에서만 아니라, 익명의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힌 연구(김혜숙, 1995, 1997) 및 기본적으로 익명의 장면에서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밝혀낸 연구(김진국, 1986; 김혜숙·유주란, 1995)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회 행위의 근본 원리로서 겸양의 가치가 사회 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규범으로서의 겸양과 동료교양의 가치가 내면화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즉, 개인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겸양 편향은 일종의 자기증진(self-promotion)의 한 책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Cialdini & De Nicholas, 1988; Markus & Kitayama, 1991a; Taylor et al., 1994), 집단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심리적으로 진실한 자기 지각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것”(Markus & Kitayama, 1991a, p.244)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키고, 개인 존재는 집단 속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써, 집단 규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고, 따라서 공개 조건과 익명 조건의 의견이나 태도 및 귀인 경향과 선호 경향에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Bond & Smith, 1996;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이러한 사실은 Bontempo, Lobel과 Triandis(1990)에 의해 직접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브라질(집단주의 문화)과 미국(개인주의 문화)의 피험자들에게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내집단의 규범이 요구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겠는지(당위성)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즐겁겠는지(유희도)의 두 차원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응답은 공개 조건과 익명 조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브라질 피험자들

의 반응은 공개 조건과 익명 조건에 차이없이 당위성과 유희도에서 모두 높았음에 비해, 미국의 피험자들은 공개 조건에서는 당위성과 유희도를 모두 높게 평정했으나 익명 조건에서는 모두 낮게 평정하여 두 조건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브라질인들은 내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기꺼히 따르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현상은 선기 필자(조공호, 1993, 1996)가 제시한 문화 유형에 따른 대인평가 특성의 우월성가설과 대인평가 결과의 정교화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월성가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조망에 따라 대인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탐색되는 특성(우월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교화가설은 이러한 문화에 따라 중시되는 우월특성과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부차특성에 대한 인상평가 결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탐색되는 우월특성의 인물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이고 정교화된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과 자기억제 및 상황에 따른 행위가변성을 강조하므로 조화성(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내집단에의 동조·겸양·노력 등의 특성을 중시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대인평가 과정에서 탐색되는 우월특성으로 부각된다. 그 결과 집단주의자들은 성취 결과에 대해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겸양 편향자를 자기교양 편향자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밝혀지고 있는 이러한 인물 선호의 문화차 현상은 상기한 정교화 가설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집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조망에서 강조되는 우월특성인 겸양과 노력 귀인의 인물을 부차특성을 가진 인물(자기교양 귀인자와 능력 귀인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찰해 볼 것은 본고에서 밝혀진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과연

집단주의 문화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 공수자와 한규석(1996)은 집단주의-상황귀인 : 개인주의-성향귀인의 명제를 밝혀낸 대표적인 문화비교 연구의 하나인 J. G. Miller(1984)의 결과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검해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일반화의 조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한국인 피험자들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타인의 실제 행동을 귀인하게 했을 때는 인도인 보다는 미국인과 유사하게 상황귀인 비율보다 성향귀인 비율이 높아서(이타 행동의 경우 각각 25%와 41%; 일탈행동의 경우 각각 24%와 52%) 위의 명제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탈행동을 심각성을 달리하여 각본으로 제시하고 이를 귀인하게 하면, 미국인보다는 인도인과 유사하게 상황귀인 비율이 성향귀인 비율보다 2~6배 이상 높아서 (위급한 상황의 경우 각각 27%와 13%; 중간 상황의 경우 각각 67%와 11%; 사소한 상황의 경우 각각 63%와 12%) 위의 명제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었다. 행동의 종류에 따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는 집단주의 사회라고 해서 항상 상황귀인만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유보조건을 달게 하는 결과로, 문화비교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의 문화간 일반화 문제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퍼져 있으며(김의철, 1997; 차재호·정지원, 1993; Cho, 1994 등), 본고의 실험 2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원들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사회에나 “역문화적 개인”(countercultural individuals: Triandis, 1994, p.43), 즉 집단주의 사회의 개인중심성향자와 개인주의 사회의 집단중심성향자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들 역문화적인 개인중심 성향자들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을 갖는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실험 2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의 개인중심성향자들도 비록 집단중심성향자들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겸양 편향 귀인과 겸양 편향 귀인자의 선호 경향 및 노력귀인과 노력귀인자의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성향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겸양과 노력 중시라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결과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역문화적 개인인 개인중심성향자는 그래도 상당히 집단주의적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 성향의 개인차를 고려한 후속 연구에 의해 본 연구의 결과가 재검될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수자·한규석(1996). 한국인의 인물과약 경향: 비교 문화적 조명. 국제한국학회지, 1, 89-104.
- 김기범(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소연(1997). 기업체 종사자들의 귀인양상과 귀인자 평가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의철(1997). 한국 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청소년 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진국(1986). 수행정보 및 귀인정보가 관찰자의 귀인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3(1), 217-245.
- 김혜숙(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45-63.
- 김혜숙(1997).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경쟁상황에서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에 미치는 영향. 아주사회과학논총(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1-19.
- 김혜숙·유주란(1995).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

- 이 귀인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51-67.
- 조금호(1982). 대인평가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호오성과 화친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금호(1988). 서로 다른 의존상황과 인상차원에서의 대상인물의 특성에 따른 부적 효과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4(1), 325-352.
- 조금호(1990). 대인평가 차원의 이원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87-110.
- 조금호(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 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금호(1995).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서울: 한국심리학회.
- 조금호(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 김인자(1987). 의존상황, 인상평가차원과 특성에 따른 부적 효과의 분화. *사회심리학연구*, 3(2), 85-112.
- 차재호 · 정지원(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현황 및 세계화 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 Adair, J. G.(1973). *The human subject*. Boston, MA: Little, Brown.
- Anderson, N. H.(1965). Averaging v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3-400.
- Bond, M. H., Chiu, C K., & Wan, K. C.(1984). When modesty fails: The social impact of group-effacing attributions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335-338.
- Bond, M. H., & Hwang, K. K.(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Leung, K., & Wan, K. C.(1982). The social impact of self-effacing attributions: The Chinese ca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8, 157-166.
- Bond, R., & Smith, P. B.(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Bontempo, R., Lobel, S. A., & Triandis, H. C.(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 S.: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radely, G. W.(1978).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process: A reexamination of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6-71.
- Carlston, D. E., & Shovar, N.(1983). Effects of performance attributions on others' perceptions of the attribu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15-525.
- Cha, J. H.(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Cho, N.-K.(1994).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m in Korean organizations. In G. Yoon & S.-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 Cialdini, R. B., & De Nicholas, M. E.(1989). Self-presentation by a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26-631.
- Davis, M. H., & Stephan, W. G.(1980). Attributions for exam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235-248.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iske, S. T.(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Fiske, S. T., & Taylor, S. E.(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M.(1981). *Social psychology*(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ill, D. L.(1980). Success-failure attributions in competitive groups: An exception to egocentrism.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106-114.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1982). The self-serving attribution bias: Beyond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56-67.
- Hamilton, D. L., & Zanna, M. P.(1972). Differential weighting of favorable and unfavorable attributions in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6, 204-212.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ine, S. J., & Lehman, D. R.(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83).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 B. Dere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Kim, K., & Kim, U.(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Singapore: Wiley.
- Kitayama, S., & Markus, H. R.(1996). Construal of self as a cultural fram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izing psychology. In J. D'Arms, R. G. Hastie, S. E. Hoelscher, & H. K. Jacobson(Eds.), *Becoming more international and global: Challenge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Markus, H. R., & Kitayama, S.(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

- proaches*. New York: Springer.
- Markus, H. R., & Kitayama, S.(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tin, D. W.(1991). *Doing psychology experiments*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Miller, D. T.(1976). Ego involvement and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01-906.
- Miller, D. T., & Ross, M.(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iller, J. 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R. S. & Schlenker, B. R.(1985). Egotism in group members: Public and private attributions for group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 85-89.
- Nisbett, R. E., & Ross, L.(1980). *Human inference : Strategies and shortcomings in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ss, M., & Sicoly, F.(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22-336.
- Schlenker, B. R., Weigold, M. F., & Hallam, J. R. (1990). Self-serving attributions in social context: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55-863.
- Shikanai, K.(1978). Effects of self-esteem on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7-55.
- Sicoly, F., & Ross, M.(1977). Facilitations of ego-biased attributions by means of self-serving ob-server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734-74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 (in press).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 Smith, P. B., & Bond, M. H.(1993).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Analysis and perspectives*. Boston, MA: Allyn & Bacon.
- Snyder, M. L., Stephan, W. G., & Rosenfield, D. (1976). Egotism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35-441.
- Snyder, M. L., Stephan, W. G., & Rosenfield, D.(1978). Attributional egotism. In J. Harvey, W. Ickes, & R.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2). Hillsdale, NJ: Erlbaum.
- Takata, T.(1987). Self-deprecatative tendencies in self-evaluation through social comparison.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36.
- Taylor, D. M., & Doria, J. R.(1981).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201-211.
- Taylor, S. E.(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aylor, S. E.(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67-85.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1994). *Social psychology*(8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hompson, S. C., & Kelley, H. H.(1981). Judgements of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69-477.
-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Touzard, H., & Zalaski, Z.(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Weary, G., & Arkin, R. M.(1981). Attributional self-presentation. In J. H. Harvey, W. Ickes, & R.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3). Hillsdale, NJ: Erlbaum.
- Weiner, B.(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3-25.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Springer.
- Yamauchi, H.(198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 619-626.
- Yamauchi, H.(1990). Actor and observer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non-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a, 33*, 212-219.
- Yoshida, T., Kojo, & Kaku, H.(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30-37.

Preference for the Modesty-biased Attributer in Korean Culture

Geung-Ho Cho and So-Yeon Kim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henomena to prefer the modesty-biased attributer (the person who attributes the causes of personal success to situational factors such as the assistance from others and the causes of failure to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lack of one's own abilities) to the self-enhancing attributer (the person who attribute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modesty-biased attributer) in Korean culture. In experiment 1, it was found that the modesty bias in attribution and the preference for such attributer were displayed in Korean office workers. In experiment 2, it was found that such phenomena were prevalent in Korean allocentric students, but not in idiocentrics.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modesty is the cultural code in collectivist cultures like Korea. On the basis of these facts, some relevant topics of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